

“돼지사양에 이상구(異常口) 생겨”



김인호
(송원축산(주) 이사)

농촌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들의 고향인 농촌이 막바지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축산업으로 소득을 올리던 농촌에 이상한 구멍(이상구=異常口)이 뚫려 소득원이 증발되고 있다. 오제스키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계를 위협하더니 마침내 구멍이 뚫려 이상구(異常口)가 되고 말았다. 이런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소득원이 재생되도록 비상구(非常口)를 뚫어야 될 것 같다.

요즘 돼지들이 외치기를 “내 덕분으로 스태미너가 축적돼 인간이 대(代)를 이어 갈 수 있었고, 힘든 일들도 해 낼 수 있었고, 미인들이 되었던 배운망덕하게 이제 와선 나의 모든 것이 필요없다고 하다니... 내 필수지방산이 있어 여성들의 피하에 지방이 알맞게 축적 돼(피하지방은 여성층이 남성보다 1mm~2mm 선천적으로 더 두꺼움) 탄력이 생기고 피부가 예뻐지거늘, 사우나로 애써 기름 빼 내고 비싼 기름(화장품)을 밖에서 안으로 문질러 밀어 넣고 있다니...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더니 손등 갈라지는 초겨울병 없애 주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 그렇다고?! 내 이 몸 다바쳐 한방약제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보약성분으로 인간들의 몸보신 해주었던 거늘, 한번의 비웃음보다 못하다니... 내 이 몸

아니었던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낼 수 있었을까.” 이 밖에도 많은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특히, 요즘 오제스키라는 이상구가 생겨 돼지들의 함성이 더욱 들끓는 듯하다. 이런 때 양돈인들은 더욱 커다란 발소리로 돌아다니며 고향 땅을 가꾸며 지켜야 될 것 같다. 고향인 농촌을 기름지게 하는 사랑스런 돼지들이 이상구 같은 흑심의 사나이들에게 유혹당하지나 않는지, 추수 높은 비상 경계등을 켜 감시해야 될 것 같다. 비쩍 말라빠진 이상구 같은 오제스키라는 미생물이 없어지도록 매일 소득하자.

양돈사양의 헛점은 시세가 하락되었을 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경영주들의 고민거리가 사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돼지 밥그릇에 신선한 밥이 채워져 굶지나 않는지, 물꼭지 근처에 물기가 있어(물기가 없으면 물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표시임) 물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밤사이 셋바람에 시달려 기침을 하지나 않는지 등등 더욱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 줘야 된다. 이러한 보살핌이 없다면 지금껏 외동딸처럼 길러온 돼지들이 허약해지게 된다. 일단 허약체질이 되면 교과서에 등록된 질병들이 또 다른 이상구 되어 덮쳐들게 된다.

외동말이 혼처로 가기전 이상구 같은 나쁜 사나 이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기본사양에 만전을 기 하자. 아울러 정기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백신들이 빠져있는지 정신차려 검토해 봐야한다.

가쁜 호흡을 진정시키고 생산성의 뿌리부터 차분히 검토해 봐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모든 개체의 생산성을 따져 경제성이 없는 모돈을 경제형질이 우수한 후보돈으로 교체시키고, 외부에서 맞아들이는 암돼지 머느리와 수돼지 사위감은 이상구가 다녀가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선발함이 좋다. 외모심사는 「주전자 선발법」(= 물을 어깨쪽에 부어 물이 꼬리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함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해서 맞아들인 머느리와 사위감들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보살펴 주는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

외동말처럼 길러온 돼지들이 여행(가까운 거리의 이동도 마찬가지 임)을 하게 되면 체내에서 열이 발생되어 체온이 상승한다. 이렇게 체열이 높아진 상태에서 먹이를 주게 되면 속이 불편해지고, 소화기능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하여, 첫날 절식시켜야 된다. 이때 체열을 내리기 위해 물은 자유급식토록 한다(여름철은 수욕이 필요함). 물에다 수용성 영양제와 항생제를 섞어 먹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동 후 1주일 급여시켜 주면 좋음). 돼지는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환경을 인식해 두고자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돌아다니며 눈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아니라 후각으로 기억해 둔다. 이 때 바닥에 깔짚이 없으면 지체(발바닥과 발굽)가 닳아져 차후 보행이 불편해지게 되므로 깔짚은 15cm 두께로 충분히 깔아줘야 된다. 사위감과 머느리감 모두 번식에 공여되는 돼지는 사계절 깔짚관리가 필요하다. 이튿날부터 급식훈련에 들어가야 되는데, 급여량은 정상섭취량의 삼분의 일량부터 시작해야 된다(1일 2회로 나누어 급여시킴). 정상 섭취

량에 도달되는 시기는 15일 후 이어야 되며(점차적으로 증량시킴) 이 기간동안 사람과 친숙해지도록 특별교육(배가 고과 사람에게 접근할 때 쫓아버리지 말고 쓰다듬으면서 사귀어 둠)을 해야 되며, 사료급여 순서를 정할 때 기존 돼지 다음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중에서도 수돼지는 맨 끝에 급여시키도록 한다. 이때 수돼지 사위감이 기거해야 될 방의 벽(복도쪽)은 출입구(사료 급식시켜 주는 쪽의 반대 방향)에 두는 것이 좋음)를 제외하고 막혀있는 것이 좋다. 배식시간의 답답함은 돼지들에게 있어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이 되며,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는 담을 뛰어 넘을 정도가 돼 이러한 경우를 이용하여 승가훈련을 시켜줌이 좋다. 파이프 칸막이 담은 수돼지의 운동을 좌우로만 유도하므로 앞이 막혀 있는 시멘트 블럭 담 또는 그와 유사한 재질로 된 칸막이로 되어야 답답증을 일으켜 예비승가 훈련을 유도시키는 데 용이해진다. 또한 가지 유의할 점은 수돼지 사료급여통 높이는 암돼지 외음부 위치일수록 좋다는 점이다(물꼭지 높이도 외음부 높이로 해 줌이 좋다). 사료통이 없다는 이유로 수돼지 사료를 바닥에 급여시켰을 때 수돼지의 고개가 바닥을 향하게 되므로 그 이후의 평상시 행동 자체도 고개가 땅으로 수그러든 상태로 되게 된다. 때가 되어 자연교미를 유도할 때 고개를 수그린 채라면 승가유도가 어려워지므로 이 점 각별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도회지가 몇몇 부자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처방이다시피한 건강요법에 관한 강연을 이십평 남짓한 호텔방에서 해도 충분한 경우를 우리나라 전체의 평수에다 전과강연을 시켜 부모님 계신 고향 농촌을 폐허로 만들려 하다니... 양돈사양에 이상구가 생겨 타격이 심해지고 있으나, 우리 모두 사양전반에 비상등을 켜고 소비 홍보에도 앞장서 양돈사양에 뚫린 이상구를 없애자. **■**